

보도시점 : 2024. 2. 22.(목) 14:00 이후 (2. 23.(금) 조간) / 배포 : 2024. 2. 22.(목)

국토부-지자체 맞손, GTX 연장 신속 추진한다

- 22일 경기·충남 등 8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 GTX-A·C 연장구간도 신속 절차로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 * A 연장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 동탄 ~ 평택지체 20.9km 연장
- C 연장 : 양주 덕정 ~ 수원 ⇒ 덕정 ~ 동두천 9.6km, 수원 ~ 아산 59.9km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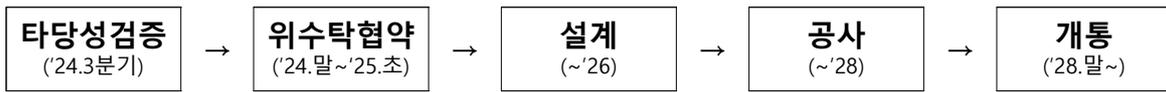
○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를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다.

□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GTX-A·C 연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C 연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 드린다”면서,

○ “GTX 연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아니라,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토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 A 평택 연장도 이번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일반철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3~4년 정도 단축되면서 '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 “GTX의 혜택을 경기 남북, 충청권의 6개 지자체 주민들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 GTX-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 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 또한, GTX-A와 C연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함께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되면 지역에는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책임자	단 장	이경석 (044-201-4166)
		담당자	기획팀장	황세은 (044-201-4161)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044-201-4164)
		담당자	주무관	박웅한 (044-201-4165)

